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환자의 마음까지 살핀 공감의 의료, CMC에서 완성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환자 중심 의료로 제5차 환자경험평가 모두 1등급 획득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이 지난 7월 31일(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5차 환자경험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결과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이 환자 중심 의료를 꾸준히 실천해 온 성과이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추구하는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톨릭 영성을 의료 현장에서 구현해 온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환자경험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대표적인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평가로, 환자가 직접 경험한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한다. 이번 제5차 평가까지는 2년 주기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매년 실시된다.

이번 제5차 환자경험평가에서는 처음으로 등급제가 도입됐다. 7개 평가 영역의 평균으로 산출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90점 이상부터 75점 미만까지 5점 간격의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이 가운데 종합점수 90점 이상을 획득한 의료기관에는 1등급이 부여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의 평균 점수는 ▲간호사 영역 93.61점(전체 평균 88.99점) ▲의사 영역 91.86점(86.89점) ▲투약 및 치료과정 91.59점(86.35점) ▲정서적 지지 88.30점(82.37점) ▲환자안전과 병원환경 93.97점(88.86점) ▲환자권리보장 92.10점(87.70점) ▲전반적 평가 94.09점(89.31점)으로, 모든 평가 영역에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새롭게 신설된 '정서적 지지' 영역은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위로와 공감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전체 평균이 82.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은 모든 기관이 전체 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기록했으며, 최고 점수는 92.07점에 달했다. 산하 8개 병원의 평균 역시 88.30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5.93점 높았다.

이번 환자경험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전국 57개소다. 이 가운데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이 모두 1등급을 획득하며 전체의 약 14%를 차지해 환자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우수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상급종합병원 3곳과 종합병원 5곳으로 구성된 CMC 산하 병원이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 전반에서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개별 병원의 우수한 성과를 넘어 의료원 차원의 표준화된 환자경험 관리 체계와 환자 중심 문화가 전 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민창기 의료원장은 "이번 결과는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하기 위해 헌신해 온 CMC 교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는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산하 병원을 지탱해 온 가장 큰 경쟁력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최초의 장기이식을 이끈 이식의학의 개척자 이용각 · 민병석



한국 장기이식의 시작을 알린 1969년 3월 성모병원에서의 신장이식 수술



이용각 교수



민병석 교수

1969년 3월 25일 명동 성모병원 수술실. 들것에 실려 온 한 청년의 몸으로, 어머니의 신장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장기이식**이었습니다. **집도는 가톨릭대 의대 외과의 이용각 교수(1924-2016)가, 면역 거부 반응의 조절은 내과의 민병석 교수(1929-1983)가** 맡았습니다. 며칠 뒤, 들것에 실려 들어왔던 환자가 이제 신문을 읽고 빵과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신장이식을 돌발적인 성공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장이식은 도리어 오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먼저 외과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용각 교수는 경성의전(현 서울대 의대)을 졸업하고 세균학자를 꿈꾸던 기초의학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학을 눈앞에 둔 1950년 공교롭게도 출국이 닳새 미루어졌고, 그 틈에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인민군

장집을 가까스로 피한 이용각은 미군을 따라 군의관으로 종군했습니다.

종군의 경험은 이용각을 기초의학도에서 외과의사로 바꾸어놓았습니다. 아전 이동외과병원에서 이용각은 전사자의 동맥을 다른 이에게 이어 붙이는 세계 최초의 혈관이식 수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인연은 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용각은 미국으로 건너가 혈관외과의 권위자 마이클 드베이키 밑에서 수련했고, 세계 수준의 수술법을 익혀 귀국하여 1962년 가톨릭대 의대에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내과의 준비였습니다. 장기이식은 수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의 장기를 몸이 밀어내는 면역 거부 반응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병석 교수는 1952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여러 해를 미국에서 수련하며, 서구 의학계의 최신 흐름을 실시간으로 좇던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 가톨릭대 의대에 부임한 이후에도 이러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그 덕에 수술 직후, 미국의 토머스 스타즐 연구진이 제시한 최신 지견에 따라 아자티오프린과 항림프구글로불린을 재빨리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만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미생물학교실 기용숙 교수와 이종훈 교수는 이식에 앞서 조직 적합성을 판정**했습니다. 변변한 실험 기구조차 없던 시절이었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용숙과 이종훈은 동대문 시장을 돌며, 기자재를 손수 제작해야 했습니다. 외과의사와 내과의사, 그리고 면역학

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준비를 마친 덕분에, 신장이식은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1969년 12월 대한이식학회가 창설되어 기용숙 교수가 초대 회장을, 이용각, 민병석 교수가 각각 부회장과 총무이사를 맡았고, 물줄기는 훗날 대한면역학회의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신장이식은 가족과 이웃에게, 때로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누는 새로운 나눔의 문화를** 낳기도 했습니다.

식민과 전쟁의 격동을 온몸으로 통과한 세대에게,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의 굴곡은 도리어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세균학자의 좌절이 혈관외과의 기술로, 국경을 넘나든 배움이 면역학의 안목으로 여물지 않았다면, 첫 신장이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각 교수와 민병석 교수의 준비가 하나로 맞물리며, 새로운 의학의 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한국 이식학과 면역학의 반석이 되어, 지금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글: 인문사회이학과 박승만 교수)

▶ 대학의 명칭은 시절에 따라 성신대학 의학부, 가톨릭대학 의학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현 공식 명칭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또는 가톨릭대 의대로 일괄 표기합니다.



소아 수술 중 이산화탄소 분압, 채혈 없이 예측하는 AI 첫 개발 동맥관 삽입 어려운 신생아 · 영아 반복 채혈 부담 감소 기대



김현호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 김현호(소아청소년과) 교수팀(제1저자: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주현 전공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조채은 학생)이 수술 중 생체신호 데이터를 활용해 소아 환자의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

압을 높은 정확도로 추정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마취 · 통증 분야 국제학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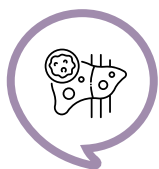
지 <Anesthesiology> (IF=9.4)에 게재됐다.

수술 중 환자의 호흡 상태를 파악하려면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혈관이 가늘고 체중이 적은 소아 환자는 동맥에 관을 넣어 채혈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이나 빈혈 같은 합병증 위험이 성인보다 훨씬 높다. 피부 밖에서 측정하는 기존의 비침습적 방식 역시 실제 수치와 오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공개 데이터베이스(VitalDB)의 소아 환자 3,586명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구축했

다. 사플리 부가설명값(SHAP) 분석을 적용해 호기말 이산화탄소, 체온, 연령 등 10가지 핵심 생체 변수를 선별하고 이를 머신러닝에 학습시켰다.

그 결과, 새 AI 모델은 기존 단독 측정법(평균오차 3.56 mmHg) 대비 오차(MAE)를 약 23% 줄인 2.73 mmHg를 기록하며 추정 정밀도를 대폭 끌어올렸다. 나아가 충남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독립적인 환자 데이터를 통한 검증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입증하며 실제 수술실에서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간암 표적단백질 'GPC3'가 늘어나는 원리 규명

짧아진 GPC3 RNA, miRNA 억제 회피해 암세포 증식 촉진



남석우 교수, 대학원 과정 전소영 학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남석우 교수(교신저자) 연구팀(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과정 전소영 학생)이

간암의 대표적 표적단백질인 GPC3(Glypican-3)가 과발현되는 원인을 RNA 조절 단계에서 규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Oncogene》(IF=9.1)에 게재됐다.

GPC3는 정상 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간암에서는 높게 발현돼 진단 지표와 항체·CAR-T 세포치료제의 핵심 표적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간암에서 GPC3가 왜 증가하는지에 대한 상위 조절 기전은 그동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간질환 환자 코호트와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 간암세포에서 GPC3 유전자의 RNA 끝부분(3' 비번역부위)이 '선택적 폴리아데닐화(APA)'에 의해 비

정상적으로 짧아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상 간에서는 이 RNA 부위에 특정 마이크로RNA(miR-96-5p, miR-140-5p)가 결합해 GPC3 생성을 억제하지만, 간암에서는 조절 단백질인 CSTF2가 증가해 RNA 끝부분을 짧게 잘라내며 억제 기전이 무력화되는 원리다.

결국 제동 장치를 잃은 GPC3 단백질이 급증해 간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세포 표면 단백질 표적 방식에서 나아가, CSTF2를 표적으로 RNA 단계에서 조기 개입하는 새로운 치료 및 진단 바이오마커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시 기반 임신성 당뇨 조기 진단기술 개발

기존 24~28주서 16~20주로 조기 진단... 소량 혈청으로 정확도 최고 90.37% 달성



김연희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연희 교수 공동 연구팀이 인공지능(AI) 딥러닝 모델과 고감도 바이오센서 기술을 결합해 임신성 당뇨병(GDM)을 기존보다 8주 앞당겨 진단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센서 분야 국제 학술지인 《Sensors & Actuators: B-Chemical》(IF=8.3) 최

신호에 게재되며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 당뇨병이 처음 발견되는 질환으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24~28주

차에 포도당 부하 검사를 통해 진단했으나, 연구팀은 나노 반도체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를 16~20주 차로 앞당기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스마트 기판은 이황화몰리브덴(MoS₂) 반도체 계면의 전자 유도를 활용해 표면에 금 나노입자를 스스로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여기에 AI 합성곱 신경망(CNN) 분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 소량의 혈청만으로 환자 데이터를 분류하는 정확도가 최고 90.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술적으로 기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즉시 임상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나, AI와 나노 센서 융합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정밀 예측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연구와 현장 진료의 융합을 지속해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포치료 앞둔 고형암 환자, 혈액·폐기능 검사로 위험 미리 안다

CRP 높을수록 생존 짧고 세포 주입량 많을수록 무진행생존 길어



임정욱 교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임정욱 연구팀은 고형암 환자의 세포치료 전 혈액검사와 폐기능검사 결과가 치료 후 생존 기간과 부작용 위험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면역학 분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Immunology》(IF=7.0) 2026년 7월호에 게재됐다.

고형암 세포치료는 면역 과민 반응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CRS)이나 신경독성증후군(ICANS) 등 중증 부작용 위험이 커 사전에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팀은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세포치료를 받은 고형암 환자 122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치료 직전 검사한 혈액(CRP·호중구 수) 및 폐기능 지표가 실제 예후와 부작용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치료 직전 시행한 C반응성단백(CRP), 호중구 수, 폐기능검사 수치와 치료 경과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치료 전 C반응성단백(CRP) 수치가 높을수록 전체생존기간(중앙값 8.6개월)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주입한 세포 수가 많고 폐확산능 지표가 높을수록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생존기간이 모두 양호했다.

또한 전체 환자의 57.4%에서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이 발생했는데, 치료 전 호중구 수치가 낮을수록 발생 위험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고형암 환자의 세포치료 전 염증 수치, 폐기능, 혈액학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경과와 합병증 위험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정욱 교수(제1저자)는 "고형암에서 세포치료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치료 전 어떤 지표를 바탕으로 예후와 부작용 위험을 평가할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연구는 C반응성단백, 폐확산능, 호중구 수 등 비교적 임상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지표가 환자 평가에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밀한 칼끝과 따뜻한 소통, 폐암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향해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안세하 교수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수술의 매력에 이끌려 폐 질환 치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안세하 교수. 안 교수는 단일공 흉강경을 활용해 절개 범위를 줄이고, 폐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복합 구역절제술’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와 보호자의 온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AI 설명 영상을 제작하는 등, 최선의 치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안세하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및 현재의 세부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인턴 첫 달에 심장혈관흉부외과를 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 환자분이 걷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오셨는데, 수술 후 건강하게 걸어서 퇴원하시는 모습을 보며 수술이 한 사람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후 더 많은 환자분의 생명을 제 손으로 살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폐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폐 수술은 해부학적으로 복잡하고 세심한 판단이 필요해 매 순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는 점도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작년 8월, 단일공 흉강경을 이용한 ‘복합 구역절제술’로 학술지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수술법이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환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점을 가져다주며,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종양이 폐의 중심부에 위치하면 크기가 작더라도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기 어려워 폐엽절제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형 성분이 적은 부분고형결절은 재발과 전이 위험이 낮기 때문에, 절제연이 다소 짧더라도 복합 구역절제술을 통해 종양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의 약 20~25%를 절제하는 대신 5~10%만 절제하면서도 동등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폐 기능 보존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종양학적 성과와 폐 기능, 삶의 질을 비교해 이 수술법의 근거를 더욱 확립하고자 합니다.

진료실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영상’을 직접 제작해 전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요?

외래 진료 시간만으로는 환자와 보호자가 질환과 수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고, 진료실에서 들은 설명을 이후에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



자분이나 진료실에 함께 들어오지 못한 보호자도 언제든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질환과 예정된 수술을 쉽게 설명한 AI 영상을 제작해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영상 링크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진료 이해도나 재진 시 질문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생겼나요?

입원과 수술 전에 AI 영상을 시청한 환자분들은 수술 과정과 회복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특히 수술 후 조기 보행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있어 환자분은 물론 보호자분들도 회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원활한 회복과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경험한 인터넷·유튜브의 폐 질환 정보 중 의학적으로 가장 잘못된 대표적 오해는 무엇인가요?

꼭 바로잡고 싶은 오해는 단일공 흉강경 수술이 여러 개의 구멍을 이용하는 수술보다 덜 정밀하거나 림프절 절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단일공 수술은 수술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폐 절제와 림프절 절제를 하나의 절개창을 통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하면 종양학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밀하고 충분한 수술이 가능하며, 절개를 최소화해 환자의 통증과 회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결절을 추적 관찰하는 동안 환자가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바로 병원으로 와야 하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가요?

안타깝게도 작은 폐결절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뚜렷한 위험 신호가 없습니다.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이 나타났다면 병변이 커졌거나 악성 흉수와 같은 변화가 동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바로 진료받아야 합니다. Lung-RADS 등 결절의 크기와 형태에 따른 추적관찰 기준에 맞춰, 정해진 시기에 흉부 CT 검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암이나 폐결절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꼭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폐암으로 확진됐거나 수술이 필요한 부분고형결절이라면 치료시기를 지나치게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히 고형 성분이 클수록 침습성과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높아, 수술이 지연되는 동안 병기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담당 의뢰진과 충분히 상의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의 향후 진료 계획과 함께, 치료를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로봇을 이용한 단일공 폐 수술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폐암은 진단 시기와 종양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폐를 많이 절제하지 않고, 약 5% 정도만 정밀하게 절제해도 종양학적으로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의뢰진을 믿고 충분히 상의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발견한 간호의 가치, 병원과 봉사 현장을 잇다

서울성모병원 외래원무팀 이유진 책임

고향에서 대학을 다니며 서울 대형병원까지 왕복 7시간 거리를 오가는 열정으로 간호사의 꿈을 키웠던 이유진 책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중환자실을 거쳐 2023년 서울성모병원에 입사한 그는 신경계 중환자실과 정형외과 병동, 진료예약센터에 이르기까지 임상과 행정 전반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병원 안팎에서 10여 회가 넘는 국내의 의료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의료 취약 지역의 환자들을 만나는 그는, 현장에서 배운 간호 술기와 경험을 다시 사회로 나누며 '치유와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의료 현장과 봉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로서의 가치를 찾아가는 그의 이야기를 담았다.

현재 담당하고 계신 행정 업무는 어떤 내용이며, 이전에 수행한 간호사 경험이 현재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임상 경험이 길진 않지만, 현재 맡고 있는 진료 예약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과 같은 3차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개 1·2차 병원을 거쳐 오시는데, 전화 상담으로 증상과 진단명을 파악해 가장 적합한 의료진을 연결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원내 암병원 세미나, 호흡기내과 연수강좌, 혈액내과 컨퍼런스 등을 틈틈이 들으며 역량을 넓혀왔습니다. 병동에서 직접 환자를 돌보았던 경험 덕분에 환자의 불편에 한층 더 공감하고, 병원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며 제가 가진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고, 간호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 봉사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처음 새벽에 집을 신고 피곤함을 뒤로한 채 버스를 타고 향했던 충남 태안군에서의 첫 의료봉사는 당시의 제게 정말 새로웠습니다. 처음 보는 의료진들이 모여 지역 주민들께 의료 봉사를 한다니, 과연 협력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컸습니다.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여 차례 봉사를 거치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질환을 공부하고 환자들과 호흡하며 저 스스로도 성장했고, 서울성모병원에서 갖고있는 전문적인 간호 술기를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의료인으로서 제가 가진 역량을 환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저 없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봉사를 주로 해오셨는데, 이번에 해외 의료봉사까지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대학 시절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

녀온 것을 제외하면 해외로 나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핑계로 늘 주저하곤 했지만, '봉사활동'이 목적이려면 망설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기가 된 것은 경북 울진으로 떠났던 국내 봉사였습니다. 왕복 8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오가며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께 서울성모병원에서 배운 정맥주사 간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 간호를 직접 찾아가 전하면서, 국내를 넘어 세계의 의료 취약 지역으로도 시야를 넓혀 보고 싶어졌습니다. 선진 의료기술을 전하는 현장에 간호 역시 빠질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와 함께 몽골 헤티 다르항 지역으로 향했고, 수액팀으로서 무사히 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일과 행정 일을 둘 다 해보신 경험이 봉사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두 업무를 경험한 덕분에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께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실질적인 안내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봉사 현장에는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더 이상의 치료를 포기하고 고통을 참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어르신들이 겪는 통증과 질환(FBSS 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진료예약센터에서 일하며 원내 전문 의료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꼭 필요한 전문 의료진을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을 고민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원내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봉사를 통해 제 안의 숨은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며 스스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병원 현장을 지키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다루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핵의학팀의 파견 간호사로서 8월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검사 전후 간호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감사함으로 일하며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열린의사회, 대한의료봉사자, 가톨릭평화사랑봉사단 등 여러 단체를 통해 10회 넘게 국내 의료봉사를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의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발전된 의료 서비스를 전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특히 진료예약센터에서 전화로 환자분들을 응대하며 직접 찾아가 뵙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전국의 의료 취약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으로 봉사를 갔을 때, 한 어르신께서 '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오래 살게 해달라'며 큰절로 맞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에도 깊이 감사해하시는 모습을 보

겨자씨키움센터, 'KHF 2026' 성황리 참가,

사업화 트랙 1기, KHF 2026서 혁신 기



겨자씨키움센터 'KHF 2026' 참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겨자씨키움센터(센터장 김대진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HF 2026(대한민국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의료기술 사업화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겨자씨키움센터는 사업화 트랙 1기 11개 팀과 이미 사업화를 완료한 팀을 포함해 총 14개 팀이 참여하는 통합 부스를 운영했다. 각 팀은 AI,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간호 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외 병원 관계자와 의료산업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미 사업화에 성공한 ㈜을쏘케어와 XR팀은 실제 사업화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의 실효성과 성장 가능성을 소개하며 사업화 트랙 팀들에게 실질적인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두 팀은 겨자씨키움센터의 지원을 통해 연구 성과를 시장으로 연결한 대표 사례로, 박람회 현장에서도 의료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의료 기술 사업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플랫폼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사업화 트랙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화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겨자씨키움센터장 김대진 교수는 "이번 KHF 2026은 사업화 트랙을 통해 시장과 소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디어가 실제 의료 현장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트랙을 통해 의료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 KHF 2026이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TECH)'로 의료 로봇 등 미래 헬스케어 기술과 병원 설비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B2B 박람회이다.



KHF2026 참가 14개팀

ANAPA 여의도성모

AI 기반 근골격계 전주기 케어 통합 솔루션

- ▶ 비센서·비접촉 AI 측정 기술
- ▶ 전주기 통합 플랫폼
- ▶ CMC CDW 데이터 15,000+건을 학습한 AI 회복예측 모델 보유
- ◎ 김종호, ㈜을쏘케어

XR 은평성모

세계 최초 동물실험 가상술기 콘텐츠

- ▶ 실감형 가상실습
- ▶ 반복 술기훈련
- ▶ 3D 원칙을 반영한 윤리적 교육
- ◎ 조현무, 최재연, 김성주, 김동훈, 유명석, 박지원, ㈜라온메타

디지털팜 정보융합진흥원

병원 치료 이후 연속적 건강관리 플랫폼

- ▶ 치료 주기에 맞는 설문 요청
- ▶ 재택치료가이드 디지털화
- ▶ 비대면 진료
- ◎ 고수정, 이주철, 아우식

오리지널 성의교정

AI 완화간호사 멀티 에이전트 기반 임상적 의사결정

- ▶ 1차 돌발성 통증 대응
- ▶ 다중 위기 선제적 예측
- ▶ 위기 자동 에스컬레이션
- ◎ 박미현, 고태훈, 김기철, 김동민, ㈜코드크래프트

환자 안전과 효율적 이송을 위한 레일형 슬라이딩 이송 도구

- ▶ 마찰을 줄인 순환 패브릭
- ▶ 흔들림 없는 LM 가이드 레일 시스템
- ▶ 저마찰 롤러
- ▶ 방수, 교체형 패브릭
- ◎ 심소현, 박주혜, 이주은, 이수영, 박성빈

스무스 서울성모

근적외선 광학 기술을 활용한 동맥 채혈 보조기기 / 동맥혈관의 시각화

- ▶ 동맥 혈관 실시간 시각화 제공
- ▶ 채혈 준비 시간 단축, 의료진 업무 효율 향상
- ▶ 반복 채혈 감소, 환자 통증 감소, 채혈 정확도 향상
- ▶ 임상 술기 교육플랫폼으로의 확장성
- ◎ 남윤희, 손하람, 김세영, 이유나, ㈜아이에스엠

Easy-ABGA 의정부성모

비위관을 안전하게 고정하는 의료용 튜브

- ▶ 안전한 고정기술 및 이탈 최소화
- ▶ MRI 검사 등을 고려한 비금속 소재 사용
- ▶ 튜브 삽입 깊이를 기록해 체계적인 위치 관리 지원
- ▶ 사용자 중심 설계
- ◎ 김혜진, 서연화, 황가람, 신수빈, ㈜유리드R&D

럭키비키 부천성모

삼킴 사고 예방과 구강 ALL-IN-1 가능 통합 솔루션

- ▶ 치과 치료 중 삼킴 사고 예방
- ▶ 안전한 개구 유지
- ▶ 석션 통합 / 기존 치과·의료기기와의 호환성
- ▶ 환자의 개구 유지로 시술 효율성 증대
- ◎ 김세훈, 고결, 이슬비, ㈜유리드R&D

제로 은평성모

헬스케어 사업화 플랫폼 경쟁력 입증

기술 선보여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검증

트랙 1기 11개 팀(▲오리지널스 ▲피식널 호베이션 ▲TalkTalk ▲스무스 ▲Easy- ▲럭키비키 ▲제로디 ▲CAUTIZERO ▲Friage ▲KolloK) 역시 지난 6개월간 겨자씨키움센터의 집중 지원을 통해 고도화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기술 경쟁력과 시장성을 검증받았다. 팀들은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 루션을 소개하고, 현장을 찾은 의료기관, 기업과 활발한 상담 및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사업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KHF 2026 참가는 겨자씨키움센터가 단순 지원 조직을 넘어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제품 개발, 기술 고도화, 시장 검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의료 기술 사업화 플랫폼에 육성된 혁신 기술들이 실제 산업계와 연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기 팀들이 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반영하며 “앞으로도 겨자씨키움센터는 우수한 혁신 기술을 적극 지원하며 대한민국 디지털 헬스

TECH FAIR’로, 의료 AI, 스마트병원 솔루션, 병원의료산업 전시회.



겨자씨키움센터 단독 심포지엄

‘의료 현장의 씨앗, AI와 지식 플랫폼이 만나 혁신의 숲을 이룬다’



박람회 2일 차인 8월 20일(목) 코엑스 3층 C홀 세미나홀1에서는 ‘의료 현장의 씨앗, AI와 지식 플랫폼이 만나 혁신의 숲을 이룬다’를 주제로 겨자씨키움센터 단독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총 3시간 50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겨자씨키움센터 소개 및 AI 시대 플랫폼 병원의 청사진 ▲병원과 기술경영 ▲AI와 간호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의료 현장의 아이디어를 기술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전략과 비전을 집중 조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재훈 매니저의 센터 운영 모델 발표와 ㈜올쏘케어 대표 김종호 교수의 근골격계 디지털 헬스케어 ‘ANAPA’ 사업화 사례가 공유됐다. 두 번째 세션은 신광수 교수의 의료기술경영 강연을 시작으로 메타테미(XR 동물 실험 실습), 애프터케어 솔루션, CAUTI ZERO(소변백 관리), 콜록(KolloK, 기침분석), ZeroD(구강관리) 등 5개 팀의 혁신 기술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예림 교수의 ‘AI와 간호’ 강연과 함께 AssiBot(임상 워크플로우 AI), FASTRIAGE(AI 문진), 누리(NURI, 24시간 완화간호), 간호 아이디어 3종 제품(카테터 버튼락 · 소아환의 · 브로우 보틀), Easy-ABGA(체혈 보조), Bravo Mysong(저마찰 환자 이송), 럭키비키(비위관 관리), 피식널스(RTG Pole Hub) 등 8개 혁신 과제가 차례로 소개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피식널스

서울성모

에이전트 플랫폼 /

결정 지원

선
현, 정미현,
트

피식널스

학교법인 · 서울성모

RTG POLE HUB/이동용 폴대를 바로 침상에 고정하여 환자이송을 빠르고 안전하게 준비

- ▶ 환자 이송 효율 향상
- ▶ 직관적인 조작
- ▶ 경량&컴팩트 디자인
- ▶ 환자, 직원 안전 향상

◎ 정민석, 김세윤, 오종효, 이민지, 강재진

간호베이션

서울성모

실용적인 간호아이디어 용품 3종

- ▶ 카테터 버튼락: 우발적 당김이나 움직임으로 외부 장력 감소시켜 카테터를 안전하게 보호
- ▶ 원스탑 소아 환의: 개방된 양쪽 팔 아래와 옆구리 쪽 스냅 단추를 적용하여 간편한 착탈의
- ▶ 브로우보틀: 역류방지 밸브가 장착, 내쉬기만 가능한 이산화탄소 배출 호흡훈련기구

◎ 김동연, 김은희, 오예람, 정채은, ㈜호진메디칼

TalkTalk

서울성모

환자안전 기반 임상 워크플로우 AI AGENT / 환자 상태 분석부터 보고 · 기록 생성까지 지원하는 통합 AI

- ▶ 보고(SBAR)와 기록(NDAR, SOAP · PROGRESS NOTE) 동시 생성
- ▶ 의료진의 임상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적 지원
- ▶ 병원 시스템 연계 가능한 확장형 AI 플랫폼

◎ 윤선희, 박주연, 박수진, 박채영, 오규철, ㈜리빈AI

장관리를 위한 형 구강치료 보조장치

방지
석션 장비와 호환 가능
야 확보
오미진, 진달래

휠체어 · 침대 · 폴대 부착형 소변백 관리 플랫폼

- ▶ 소변백의 바닥 접촉 및 바퀴 끼임을 100% 차단
- ▶ 다중 위험신적 클램프기 선제적 예측
- ▶ 소변백 노출을 줄여 환자 존엄성 보호

◎ 이정훈, 류다정, 김보중, 김기현, 김우상

환자의 음성을 듣고 KTAS 중증도를 예측하는 응급실 AI 문진 솔루션

- ▶ 응급실 접수 직후 AI 아바타가 음성으로 자동 문진
- ▶ 문진 요약, KTAS 1~5등급 및 근거를 의료진에 실시간 제공
- ▶ 응급의료 임상 전문가 팀이 직접 설계한 임상 문진 로직

◎ 최대원, 김수현, 유영임, 이한울, 한지현

멀티모달 개인 맞춤형 기침분석 시스템

- ▶ 24시간 실시간 호흡기 건강 스크리닝
- ▶ 이중 모드 음성 데이터 수집
- ▶ 기침 정보의 정량 데이터화
- ▶ 개인 맞춤형 보정 의료 시스템

◎ 김현범, 안태준

CAUTIZERO

은평성모

Fastriage

은평성모

KolloK

대전 · 여의도성모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새로운 사명과 비전으로 미래 의료인재 양성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 사회적 책무 실천하는 의료인 양성 방향 제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명(Mission)과 비전(Vision), 교육전략 체계를 수립해 발표했다.

가톨릭대 의과대학은 지난 20년간 유지해 온 교육목표를 재정립하고, 사명·비전·교육전략 체계 간의 구조적 연계성을 강화해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목표를 마련했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진리, 사랑, 봉사를 실천하는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는 핵심 사명을 중심으로 3개의 세부 사명과 4개의 비전을 최종 확정했다.

새로운 사명과 비전에는 ▲가톨릭 교육기관으로서 가치 구현 ▲미래 의료를 이끄는 의료인재상 제시 ▲공동선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무 등의 가치를 담았다. 이와 함께 사명과 비전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실현하기 위한 ▲통합·융합·학생 중심 ▲창의적 혁신 역량 배양 ▲미래역량 강화 ▲사회적 의무 수행 강화 등 4개의 교육 전략도 새롭게 마련했다.

사명은 대학의 존재 이유와 의료인재 양성에 대한 철학 및 핵심 가치를 담은 근본적인 핵심 책무를 의미하며, 비전은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지향하는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 목표다. 이처럼 사명

과 비전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교육 전략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지표가 된다.

이동건 의과대학장은 “새로운 교육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전인적 치유의 실천과 더불어, 첨단 융합 연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의료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명 Mission]]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진리, 사랑, 봉사를 실천하는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 첫째, 그리스도의 치유 정신을 본받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의료인을 양성한다.
- 둘째, 의학적 전문성과 연구 역량, 평생 학습 태도를 갖춘 의료인을 양성한다.
- 셋째,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료인을 양성한다.

[[비전 Vision]]

-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전인 치유의 역량과 의학교육의 탁월성을 구현하는 의과대학
- 진료와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연구 혁신을 선도하는 의과대학
- 의학과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교육자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 지역 공동체 필수의료와 국제사회의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의과대학



CMC 8개 병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전원 1등급 획득

표준화된 치료 프로세스와 신속한 골든타임 대응체계로 뇌혈관 질환 진료 역량 입증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산하 8개 부속병원(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제11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전원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는 뇌졸중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심평원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26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인력 및 시설 구성 여부 ▲병원 도착 60분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술 실시율 ▲병원 도착 120분 이내 동맥 내 혈전제거술 실시율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지주막하출혈 최종 치료 실시율 ▲조기 재활 및 기능 평가율 등 총 13개 지표를 종합해 이뤄졌다.

CMC 산하 8개 병원은 대부분의 핵심 지표에서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85.17점)을 크게 웃돌았다. 전 부속병원이 24시간 핫라인 및 신속 이송 체계, 표준화된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급성기 응급 대응 역량과 우수한 의료 질을 고르게 입증했다.

CMC는 앞으로도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전문 치료 인프라와 표준 진료 지침을 더욱 고도화하고, 8개 병원 간의 유기적인 의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뇌졸중 환자 치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차세대 TAVI 재시술기법 국내 첫 성공

최근 5년간 국내 최초 시술기록 5건,
구조심질환 분야 선도적 역량 입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장기욱 교수(순환기내과)팀이 지난 7월 22일 국내 최초로 '라마콘(LLAMACORN)'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시술은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TAVI)의 초고난도 접근법으로, 89세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타비 시술로 삽입한 인공 판막이 노후화되면 새 판막을 덧씌우는 '밸브-인-밸브(Valve-in-Valve)' 재시술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판막엽이 밀려 올라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입구를 막아 심근경색을 유발할 위험이 컸다. 이번에 시행된 라마콘은 기존 판막엽에 미세한 구멍을 낸 뒤 특수 풍선으로 압력을 가해 조직을 완전히 절개함으로써 관상동맥 폐색을 원천 방지하고 혈류를 확보하는 최신 술기다.

특히 라마콘은 판막 선택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 기법들과 달리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판막을 선택할 수 있고, 판막엽 자체를 제거해 더 넓은 혈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국내 최초 바실리카 술기에 이어 이번 라마콘까지 잇따라 성공시킨 장 교수팀은, 좌관상동맥의 높이가 낮아 재시술 시 혈관 폐색 가능성이 극히 높았던 89세 고위험 환자에게 자가 확장 판막을 활용한 라마콘 기법을 적용했다.

시술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됐으며, 환자는 시술 다음 날 시



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대동맥판막 혈류 최고속도가 정상 범위로 감소하며 뚜렷한 기능 회복을 보였다. 이번 시술 성공으로 관상동맥 폐색 위험으로 치료 선택지가 좁았던 고난도 재시술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



의정부성모병원

박지혜 국회의원·유수연 도의원· 김원기 의정부시장 방문 간담회 개최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상급종합병원 도약,
시설·장비 공격적 투자 계획 공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은 7월 27일,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 유수연 경기도의원, 김원기 의정부시장을 초청해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병원 측은 ▲2027년 개원 70주년 기념 ▲상급종합병원 진입 준비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및 병원 시설 리모델링 등 경기북부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참석한 박지혜 의원과 김원기 시장 등은 지역 응급의료 safety net 강화와 의료 인프라 개

선을 위한 병원의 선제적 노력에 높은 평가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며, 국회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등 주요 의료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필수보건을 책임지는 의료진 노고를 격려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이태규 병원장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거점병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

'CAR-T 세포치료' 첫 시행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혈액암 환자에 새 희망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이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혈액암을 치료하는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세포치료'를 성공적으로 첫 시행했다. 국내에서도 시행 의료기관이 제한적인 이 고난도 치료를 통해 은평성모병원은 세계적 수준의 혈액암 치료 인프라

와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CAR-T 세포치료는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인 T세포를 채취한 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해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개인 맞춤형 세포치료다.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반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복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완치 가능성을 제시하는 혁신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치료 환자는 두 차례 항암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기세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다. 의료진은 환자의 백혈구를 채집해 T세포를 분리하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후 다시 환자에게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혈액병동에서 약 3주간 입원하며 면역반응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받았고, 중대한 합병증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마친 뒤 퇴원했다. 현재는 외래에서 정기적인 추적검사와 진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암세포는 대부분 관해



된 상태다.

이번 치료를 시행한 혈액내과 김병수 교수는 "앞으로도 난치성 혈액암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MC 단신

의과대학

2026년 가을 의과대학 학위수여식 개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2026년 가을 의과대학 학위수여식'을 거행하고 의학사 56명을 배출했다. 수여식에는 가톨릭대학교 최준규 총장과 민창기 의무부총장 겸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동건 의과대학장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민창기 의료원장은 가톨릭 의료의 생명존중 정신과 헌신의 리더십을 발휘해 환자와 동료들을 존중하는 참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호대학

2026학년도 하계 미국 UIC 국제교류 연수 프로그램 실시



간호대학은 최근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UIC) College of Nursing에서 'Summer Undergraduate Nursing Program'을 운영하며 글로벌 간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연수에는 간호대학 3학년 재학생 7명이 참여해 글로벌 헬스 분야의 전문 교육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학생들은 글로벌 헬스와 환자안전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교육에 참여하며 국제적 간호 실무 역량을 함양했다.

서울성모병원

선천성질환센터, 다학제 협진 3,000례 달성



서울성모병원 선천성질환센터가 다학제 협진 3,000례를 달성하고 8월 11일 기념 행사를 열었다. 2009년 개소한 센터는 14개 진료과 30여 명의 전문의가 참여해 태아기 정밀 진단부터 출생 후 수술·치료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다학제 협진을 제공하며 작은 생명들을 지켜오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총 3,067건의 협진을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고위

험 산모와 선천성 질환 환아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 첫 PACS 포함 ISMS 인증으로 차세대 의료보안 기준 제시
서울성모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을 포함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3년이다. 병원은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던 PACS까지 인증 범위를 선제적으로 넓혀 의료 데이터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향후 다중망 분리체계 확대 등 철저한 보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부천성모병원

생명나눔의 숭고한 뜻 기리는 '나눔사랑길' 진행



부천성모병원이 뇌사 장기기증자를 예우하는 추모 의식 '나눔사랑길'을 진행했다. '나눔사랑길'은 기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생명나눔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기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료진과 교직원들은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향하는 기증자의 마지막 길에 도열해 묵념과 기도로 배웅했다. 2024년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은 부천성모병원은 이번 세 번째 뇌사 장기기증을 비롯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은평성모병원

가수 김장훈과 함께하는 '환우를 위한 콘서트' 개최



은평성모병원이 지난 8월 27일 본관 대강당에서 환우와 보호자, 지역 주민 200여 명을 위한 문화 콘서트를 개최했다. 치유와 활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가수 김장훈과 게스트 최연화가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과 소통했다. 은평성모병원은 앞으로도 치유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성모병원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TAVI) 200례 달성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TAVI) 200례 달성 기념행사를 열었다. 2024년 4월 100례 달성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심장혈관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센터는 고령 및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원스톱 협진 체계를 바탕으로 고난도 심장판막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의료진 대상 병리 진단 시스템 참관 프로그램 진행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타지키스탄 의료진 15명을 대상으로 병리 진단 시스템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KOICA 지원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병원은 자궁경부 세포검사 전 과정과 디지털 병리 시스템, 철저한 품질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선진 병리 진단 체계의 우수성을 알렸다.

로봇수술 5000례 달성...다빈치 SP 추가 도입



인천성모병원이 로봇수술 5000례를 달성하고,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 SP' 1대를 추가 도입했다. 2011년 인천 최초로 로봇수술을 시작한 인천성모병원은 7개 진료분과 28명의 집도의와 다학제 협진을 바탕으로 중증 비뇨기암 등 고난도 수술 역량을 입증해 왔다. 이번 추가 도입으로 총 3대의 로봇수술기를 운영하게 된 인천성모병원은 지역 최대 규모의 수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술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동정

*기관별 / 가나다 순

아태지역 최초 비뇨기 단일공 로봇수술 개인 1,000례 달성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홍성후 교수가 8월 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단일공(SP) 비뇨기 로봇수술 개인 1,000례를 달성했다. 전체 수술의 97%가 비뇨기암이었으며, 특히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부분 신장절제술이 54%로 가장 많았다. 홍 교수는 정밀한 술기로 단일공 수술의 허혈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최소침습 수술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국제 척추 전문가들과 최소침습 척추수술 교과서 공동 집필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가 세계적인 출판사 '스프링거'에서 발간된 아시아태평양 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SMISS-AP) 공식 교과서의 공동 편집자로 참여했다. 이번 교과서는 척추 내시경, 최신 척추 유합술, 로봇 수술 등 최소침습 척추수술의 최신 기법과 이론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김 교수는 "전 세계 척추외과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결막 술잔세포 촬영 기술 미국 특허 등록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황호식 교수가 결막 술잔세포를 촬영할 수 있는 세극등 현미경 기술로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 이 기술은 안과 기본 진료 장비인 세극등현미경에 특수 필터와 광학 장비를 결합해, 비접촉 방식으로 술잔세포의 형광 반응을 선명하게 영상화한다. 각막 손상과 환자 불편을 줄이고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춰, 안구건조증의 정밀 진단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초음파의학회(KSUM) 국제저술상 수상



성빈센트병원 영상의학과 정소령 교수가 대한초음파의학회 총회에서 국제저술상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대한영상의학회(KJR)에 양성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의 10년 장기 추적 결과를 발표해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연구 결과 단일 시술 후 10년 시점 결절 부피 감소율이 98.8%에 달해, 비수술적 치료의 장기적인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눔으로 생명과 미래 응원”

박병찬 회장, 서울성모병원 ·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기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7월 13일 중앙포장주 박병찬 회장이 후원한 서울성모병원 발전기금 및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금 1억 원에 대한 전달식을 개최했다.

박병찬 회장과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연은 2016년부터 이어져 왔다. 천주교 신자인 박 회장은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서울성모병원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후원은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의 세심한 진료와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박 회장은 더 나은 의료환경 조성 and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서울성모병원 발전기금을 후원했으며, 사랑과 나눔, 공동체적 연대라는 가톨릭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도 후원 의 뜻을 더했다.

박병찬 회장은 “기업의 역할은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며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전해주신 소중한 마음은 서울성모병원의 발전은 물론, 전 세계 청년들이 희망과 평화를 나누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더욱 뜻깊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회장님의 뜻을 소중히 새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료와 사랑의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은 기부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따뜻한 진료와 열정에 의학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기부

김정은 기부자는 은평성모병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으며, 전달식에는 배시현 병원장과 위장관외과 김동진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정은 기부자는 오랜 기간 은평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가톨릭 신자로, 위장관외과 김동진 교수의 진료를 받으며 의료진의 전문성과 따뜻한 배려에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학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부했으며, 기부금이 김동진 교수의 연구와 의학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김동진 교수가 소아 외과 분야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연구와 학문적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정은 기부자는 “김동진 교수님께서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해 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기부가 의학 발전과 환자들을 위한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배시현 병원장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김정은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후원자님의 뜻을 소중히 이어받아 의학 연구와 환자 중심 의료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7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의정부성모병원			
(주)선진 2,857,530원	손계자 70,000,000원	안상현 300,000원	양지안 365,000원	김유성 240,000원	이희아 매월 5,000원	고윤상 150,000원	박옥희 1,000,000원
양지은 3,650,000원	이영은 50,000원	조인용 1,000,000원	하현석 10,000,000원	부천성모병원 모금함 131,750원	송미선 매월 5,000원	부천성모병원 모금함 131,750원	송미선 매월 5,000원
현철환 10,000원				송혜림 매월 10,000원	유수경 매월 20,000원	송혜림 매월 10,000원	유수경 매월 20,000원
대학(성의교)				부천성모병원			
(주)더블유앤에이치 1,000,000원				이종현 100,000원	이지연 매월 5,000원	이종현 100,000원	이지연 매월 5,000원
(주)오스템임플란트 12,000,000원				이하늘 매월 20,000원	이해남 500,000원	이하늘 매월 20,000원	이해남 500,000원
(주)우리은행 400,000원	김경화 200,000원	김경화 1,800,000원	김수정 1,000,000원	정 미 10,000,000원	정유진 매월 10,000원	정 미 10,000,000원	정유진 매월 10,000원
김경화 1,800,000원	김수정 1,000,000원	변주환 1,000,000원	세무법인 KNP 500,000원	최유진 매월 10,000원		최유진 매월 10,000원	
이경주 500,000원	이현아 1,000,000원	이경주 500,000원	이현아 1,000,000원				
(주)아너스금융서비스 1,000,000원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1,000,000원							
서울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주)스마일웍스 852,000원	(주)명화아름 5,720,000원	계동구 매월 3,000원	고인애 매월 3,000원	김경민 매월 5,000원	김아영 50,000원	김경민 매월 5,000원	김아영 50,000원
권오경 매월 10,000원	권정인 매월 3,000원	김경희 매월 10,000원	김문옥 500,000원	김정은 10,000,000원	김주희 매월 5,000원	김정은 10,000,000원	김주희 매월 5,000원
김민선 매월 3,000원	김선화 매월 10,000원	김세미 매월 3,000원	김소연 매월 10,000원	김창재 10,000,000원	김창재 10,000,000원	김창재 10,000,000원	김창재 10,000,000원
김소연 매월 3,000원	김송자 5,000,000원	김양순 매월 3,000원	김영근 매월 5,000원	김형미 10,000원	명일ENG 5,000,000원	김형미 10,000원	명일ENG 5,000,000원
김영주 매월 5,000원	김유경 매월 5,000원	김유정 매월 10,000원	김은미 매월 3,000원	박선아 매월 5,000원	백훈렬 100,000원	박선아 매월 5,000원	백훈렬 100,000원
김은영 매월 5,000원	김정후 매월 3,000원			송 민 매월 30,000원	양은경 300,000원	송 민 매월 30,000원	양은경 300,000원
				이설화 매월 5,000원	이성재 1,000,000원	이설화 매월 5,000원	이성재 1,000,000원
				이신형 매월 50,000원	이정영 50,000원	이신형 매월 50,000원	이정영 50,000원
				이지수 100,000원	이지현 매월 10,000원	이지수 100,000원	이지현 매월 10,000원
				익 명 30,000원	익 명 100,000원	익 명 30,000원	익 명 100,000원
				익 명 5,000원	임오승 500,000원	익 명 5,000원	임오승 500,000원
				장혜원 매월 5,000원	재연진 매월 5,000원	장혜원 매월 5,000원	재연진 매월 5,000원
				주식회사 제이씨엘리서치 100,000,000원		주식회사 제이씨엘리서치 100,000,000원	
				천주현 매월 5,000원	하다솜 매월 5,000원	천주현 매월 5,000원	하다솜 매월 5,000원

▶ 바로잡습니다

지난 2329호에 게재된 '신규 약정자 명단' 중 의정부성모병원 약정자 명단이 여의도성모병원 명단으로 중복 오기되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보내어 주신 후원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의정부성모병원

2026년 6월 신규 약정자 명단

(주)국민은행 의정부홍플러스지점 50,000,000원
김 산 매월 10,000원 김인섭 매월 50,000원
김현진 매월 5,000원 우윤정 매월 5,000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2~3, 7995~7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바일 후원
바로 가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기초에서 임상까지 잇는 미토콘드리아 면역의학 연구 허브 구축

미토콘드리아 면역의학 연구센터 출범,
국내외 융합 및 공동연구 확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이 미토콘드리아 면역의학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반 면역의학 연구 활성화와 차세대 치료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조미라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운영하며, 공식 출범을 기념하는 개소식과 창립기념 학술 심포지엄

이 지난 7월 7일(화)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병원경영실장 배원일 신부의 연구센터 축복식으로 시작됐으며, 김완옥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동건 의과대학장, 이성범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주지현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겸 (주)입셀 대표, 양철우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이어 열린 창립기념 학술 심포지엄은 '미토콘드리아 치료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조절과 면역 노화'를 주제로 이석형·정병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태욱·이지현·최선신 교수가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차세대 미토콘드리아 재생의학 및 임상적용'을 주제로 김영신 연구부원장과 송교영 교수의 진행 아래 이선영·나현식·이아



람 박사와 김석중 교수가 임상 적용 연구를 소개하며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미토콘드리아 면역의학 연구센터(MIGHT)는 앞으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연계하는 융합연구를 기반으로 국내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반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과 차세대 치료제 플랫폼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간호 대학

총동창회와 함께 미래 간호인재 키운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지난 7월 10일,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총동창회와 '재학생 멘토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총동창회 동문들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선·후배 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미래 간호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선미 간호대학장과 김현주 간호대학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가톨릭대 간호대학 및 총동창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멘토단 운영 및 지원 ▲재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 ▲간호 전문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교류 프로그램 등이다.

총동창회 동문들로 구성되는 멘토단에는 임상 현장과 다양한 간호 분야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이 참여한다. 멘토단은 재학생들에게 진로 설계, 임상실습 준비, 전문직 경력 개발 등 실질적인 경험과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임상 현장과 연결하며, 보다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빈 센트

동티모르 환자 초청 자선 진료로 생명 나눔 실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동티모르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 자선진료를 시행했다. 진료는 순환기내과 문동규 교수가 동티모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던 중 중증 심장질환 환자를 발견하면서 시작했다.

환자는 동티모르 딜리교구 소속 아드리아노 시메네스 신부로, 약 3개월간 흉통이 지속됐지만 현지 의료 환경의 한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의료봉사 중 환자를 진료한 문 교수는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현지 의료환경상 심혈관조영술은 불가능했다. 이에 성빈센트 드 불 자비의 수녀회 동티모르 분원과 성빈센트병원이 협력해 초청진료를 추진했다.

환자는 정밀 검사 결과 중증 관상동맥질환으로 확인됐다. 문 교수는 두 차례에 걸쳐 스텐트 삽입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환자는 치료와 회복 과정을 거쳐 건강을 되찾았다.

퇴원을 앞둔 아드리아노 신부는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통해 "여러분은 가족도 아닌 이웃을 사랑으로 돌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았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며, 저 역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의료진에 대한 깊은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했다.



인천성모·대전성모병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항생제·주사제 등 주요 평가지표서 우수한
약제 사용 관리 및 처방 적정성 입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과 대전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약제 사용 관리와 오남용 방지, 올바른 처방 유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시행되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

지 외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원내·외 처방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항생제, 주사제,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양 병원은 주요 평가 항목 전반에서 종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낮은 처방률을 기록하며 안전하고 적절한 약물 처방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대전성모병원은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0%(종별 평균 42.96%),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48%(종별 평균 33.37%), 주사제 처방률 1.17%(종별 평균 5.27%)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성모병원 역시 주요 지표 전반에서 철저한 약제 사용 관리 수준을 보이며 종합 1등급을 획득했다.

인천성모병원과 대전성모병원은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항생제와 주사제의 오남용을 철저히 방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약제 처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작은 숨결 하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선천성질환센터, '다학제 협진 3,000례' 달성



14개 진료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흉부외과 등



30+명 전문의

태아 상태 종합 평가 및 분만·치료 통합 로드맵 구축



3,067건 협진

2009년 개소 후 17년간 축적된 풍부한 임상 노하우



유전진단

최신 유전자 분석 기술로 희귀·선천성 질환 조기 규명



소아심장

고난도 소아심장질환 집중 치료 및 수술 연계



34.5세

고령 산모 증가에 따른 고위험 임신 대응 전문 진료



2009년 3월 개소한 서울성모병원 선천성질환센터가 다학제 협진 3,000례를 달성했다. 산모의 평균 연령 상승으로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14개 진료과 30여 명의 전문의가 원팀을 이뤄 산전 진단부터 분만, 수술, 재활, 심리·경제적 지원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책임진다.

센터는 산전 초음파의 위양성률로 인한 성급한 임신 중단을 막기 위해 유전진단검사센터와 협력해 희귀·유전질환을 조기에 정확히 규명한다. 아울러 자궁 내 태아경 수술과 신생아 로봇수술 등 최소침습 치료를 선도하며, 풍부한 수술 역량을 바탕으로 선천성 심장병 등 복합 중증 질환을 해결해 왔다.

실제 출산 직전 '선천성 횡격막 탈장' 의심으로 전원된 산모 역시 다학제 맞춤 분만 계획을 통해 출생 직후 신속한 교정 수술과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여러 전문과의 추적 관찰 속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센터는 산전부터 출생 후까지 이어지는 전인적 치료 시스템으로 환자의 완치와 건강한 미래를 이끌고 있다.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시대, 의료진을 믿고 용기를 내어주신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가겠습니다.”

- 선천성질환센터장 박인양 교수



환자의 목소리로 **완성한 1등급**
당신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환자경험평가 1등급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YEOUIDO ST. MARY'S HOSPITAL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구글 에이전틱 AI 디지털 의료 혁신 결과보고회 성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 온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반 디지털 의료 혁신 PoC(개념 검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달 29일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월부터 추진됐으며, **단순한 질의응답형 AI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실행하는 차세대 AI 기술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현장에서 직접 검증(PoC)했다.**

이태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구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구글 클라

우드 인프라 기반의 AI 에이전트 구축 성과와 실제 현장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PoC를 통해 의정부성모병원은 **▲연구계획서 생성 및 검토 자동화 ▲간호 근무표 자동생성 ▲내규 검증 에이전트 ▲의공학 고장증상 어시스턴트 ▲영양 자동화 상담 프로세스 등 다각적인 실무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외부 솔루션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5월 구글 코리아 본사 실습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과 행정 교직원들이 본인의 실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기획·제작하는 **‘현장 주도형 DX(디지털 전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직원들은 반복적이고 복잡한 행정 업무를 개선할 ‘디지털 파

트너(시 직원)’를 직접 구축해 실무 부담을 낮추고 환자 진료 및 케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병원은 검증을 마친 AI 에이전트들을 현장에 순차적으로 상용화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태규 병원장은 **“이번 PoC의 가장 큰 성과는 외부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교직원들이 직접 AI를 기획하고 구축해 업무를 혁신하는 실질적인 디지털 역량을 확보한 것”**이라며, **“의정부성모병원의 AI 혁신은 이번 검증에 멈추지 않고, 향후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발걸음에 맞춰 진료·연구·행정 전반의 스마트 의료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첨단기술로 **뇌질환치료** 선도하는 **부천성모병원 뇌졸중센터**

-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1차부터 11차까지 연속) -

- ✓ 아시아 최초 뇌혈관 내 **스텐트 혈관 성형술** 성공
- ✓ 국내 최초 뇌동맥류 **파이프라인 스텐트 설치술** 성공
- ✓ 국내 최다 **그물망 확장술-뇌혈관내수술** 치료성적 보유
- ✓ 전문 뇌졸중치료팀 **365일 24시간 대기**
- ✓ **뇌졸중 치료전용** 혈관조영실 및 최신 CT, MRI 운영



뇌혈관내 수술 (Endovascular Surgery)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 미세도관을 삽입해 뇌동맥류, 뇌혈관협착증, 뇌동정맥기형 등 뇌혈관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술



키홀서저리 (Keyhole-Surgery)

열쇠구멍(키홀)의 원리를 뇌수술에 적용한 것으로, 동전 크기로 머리를 열고 뇌동맥류와 일부 뇌종양, 안면 경련 등 각종 뇌병변을 치료할 수 있는 미세침습적 현미경 수술



뇌방사선수술 (Radio-Surgery)

뇌종양이나 혈관기형 등 뇌에 생기는 병변에 대해 머리를 열지 않고 고용량 방사선을 수술로 절개 하듯이 쏘아서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호하고 병변을 제거하는 치료법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ep.or.kr

폐암센터



다학제 협진으로 완성하는 최적의 맞춤형 폐암 치료



호흡기내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EBS 명의 검은 그림자, 폐결절을 추적하라

작은 결절 하나가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 폐암센터는 정확한 진단으로
폐암을 조기 발견하고, 여러 진료과의 협진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2026.8.7.(금)
EBS1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여창동 교수
호흡기내과 | 암센터장



안세하 교수
심장혈관흉부외과



이배영 교수
영상의학과



이영섭 교수
병리과